

인하대 “자체투자 확대”, 성신여대 “교육부에 강경대응”

대학기본역량 탈락에 거센 반발
인하대 “교육부, 일관성 없는 평가
이번조치, 고등교육 후퇴의 계기”
성신여대 “특성 고려없는 획일평가”

교육부가 올해 실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결국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탈락하면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송을 비롯해 교육부에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재학생과 신입생을 위해서는 대학 자체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가결과 이후 대다수 대학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최종 결과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미선정에 따라 두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연간 지급 규모는 평균적으로 올해 기준 대학은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이다. 특히 인하대는 올해 대학 중 최상위권 금액인 7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지난 3일 인천 인하대학교 본관 현경홀에서 조명우 총장이 입장서를 낭독하고 있다. /인하대

단, 이번 미선정 대학들도 국가장학금지급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반재정지원 미선정일 뿐, 부실대학 아니다”

그러나 일반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된 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는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그간 ‘부실대학’이라고 불리던 국가장학금지급 및 등록금 대출 불가 대학은 지난 5일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선정 방식 및 순서가 바뀌면서 일반재정지원만 받지 못하는 이번 미선정에도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동일한 교육품질 지표를 가진 ACE+사업 수행에서는 우수 평가를 하고 이번 평가에서는 미선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평가 결과를 초래했고, 소수 평가 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교육 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 감 잡이 이의신청 절차 등 평가 지상주의에 함몰돼 있다”며 “당초의 목표를 망각해버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조명우 총장은 “교육 당국은 인하대가 우수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교육

수출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인하대가 구축해온 명문 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인하대는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되며 손실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교와 재단 차원에서 자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조 총장은 “연간 4500억원이라는 예산을 운영하는 인하대는 이번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을 자구노력과 함께 재단, 교내 구성원, 총동창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회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가결과 발표 이후 인천시, 의회, 교육청,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원 등 인천 지역의 많은 분께서 전폭적으로 인하대를 믿고 지지해준 만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혁신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뤄진 각종 평가와 상반된 결과로 평가 ‘불신’… “법적대응 불가”

성신여대도 최종결과 납득이 불가능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성신여대는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에서 교수 개발과 학생학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성과 항목에 관해 모범 사례라는 평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유사 지표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취업지원 지표는 2018년에 진행된 2주기 진단평가에서 100점 만점 대비 90.8점의 점수를 받았지만, 올해 평가에서 76.9점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에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우리 학생들인 만큼,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협의기구 구성해 진단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의 정성평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기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제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평가 기회가 부여된다면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연세대, 공유플랫폼 ‘런어스’ 오늘 오픈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지식·정보 공유

연세대학교가 뉴미디어·디지털 시대의 교육 혁신을 선도할 지식 공유 플랫폼 ‘LearnUs(런어스)’를 6일 일반대 중들에게 오픈한다.

연세대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속화된 교육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올해 초 기존 자체 서버 기반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비대면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왔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열어 연세대가 만들고 검증하는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런어스 스튜디오 /연세대

‘LearnUs’는 ‘Learning Ubiquitous square’의 약자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학습 광장’이라는 의미다.

런어스에서 제공되는 과정은 크게 ▲전문과정 ▲공개과정 ▲국제과정 ▲학위과정 등 총 4개이다. ‘전문과정’에서는 분야별 전문 지식과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일반교양, 시사 이슈를 배울 수 있는 강좌들이 유·무료로 제공된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선정

대학생에 해외대학연수 기회 제공

삼육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이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진로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2020년 주관대학으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사업

이 중단되면서 올해 사업으로 승계됐다. 삼육대는 60명(타교생 12명 포함)의 대학생을 선발해 영국 리젠츠대학교, 미국 관대대학교와 함께 온라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부터 ▲진로인식검사 ▲공통역량강화 워크숍 ▲직무멘토링 ▲모의토크 ▲언어교육(전화영어) ▲글로벌 에티켓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5주간 ▲영어연수와 ▲탐색 기업 분석 프로젝트 ▲국내 글로벌 기업탐방을 진행한다. /이현진 기자

학생 1.1% 학폭 경험... 전년비0.2%p 늘어

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고 등교일수 증가에 소폭증가 2019년 1.6%보다 0.5%p 적은수치

초등학교서 유일하게 0.7%p 늘어 중학교 0.1%p, 고등학교 0.06%p ↓

지난해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교 일수가 늘면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소폭 증가했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크게 늘었고,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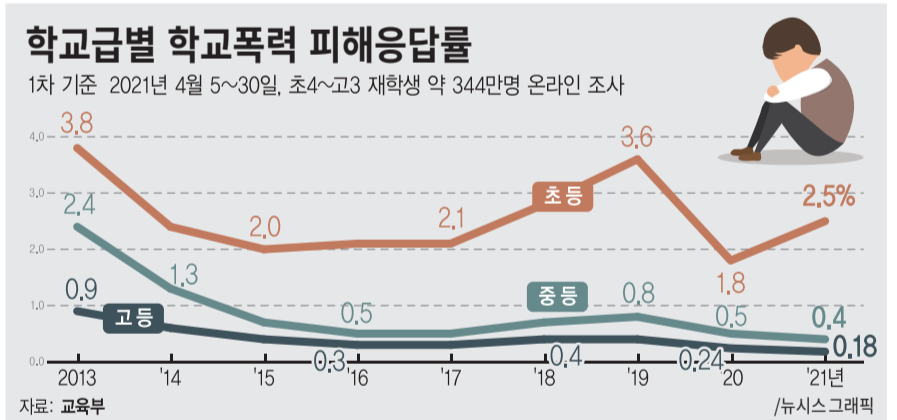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약 89%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5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총 344만명(88.8%)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49만명(6.2%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학생 약 3만6000명(1.1%)이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9~10월 조사 당시에는 0.9%였으며, 0.2%p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는 0.5%p 적은 수치다.

초등학생 학폭 피해가 유일하게 늘었다. 초등학생 학폭 피해 응답은 전년 대비 0.7%p 오른 2.5%였으며, 중학교는 0.1%p 줄어 0.4%, 고등학교는 0.06%p 감소한 0.2%로 파악됐다.



피해유형을 중복 응답할 수 있게 한 결과, 전년 대비 2.5명 증가해 학생 1000명 중 7.4명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집단따돌림 경험은 1.2명 감소한 2.6명, 신체폭력은 1명 증가한 2.2명으로 집계됐다. 사이버폭력은 0.1명 감소한 1.7명다.

피해유형별로 언어폭력 비중이 41.7%로 가장 크다. 이어 ▲집단따돌림 14.5% ▲신체폭력 12.5% ▲사이버폭력 9.8% ▲스토킹 6.2% ▲금품갈취 9.8% ▲강요 5.4% ▲성폭력 4.1%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비중은 전년 대비 8.2%p, 신체폭력도 4.5%p 증가한 p, 사이버폭력은 2.5%p 줄었다.

언어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로 집단따돌림과 스토킹은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늘었다. 피해 학생 89.3%는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고 응답했다. 피

해 알림·신고 비율은 2019년 81.8%에서 ▲2020년 82.4% ▲2021년 89.3%로 늘었다.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1만2000명(0.4%)이었다. 지난해 조사보다는 0.1%p인 약 3000명 증가했으나, 2019년 조사 대비 1만명(0.2%p)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0.85%로 가장 많고 ▲중학생 0.16% ▲고등학생 0.04%다.

가해 학생 중 35.7%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를 했다고 밝혔으며, 20.5%는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고 답했다. 10.5%는 오해와 갈등, 10.3%는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를 학폭가해 이유로 대담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7만9000명(2.3%)다. 이는 2020년보다 1만2000명(0.02%p), 2019년 6만9000(1.7%p) 적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행동으로는 69.1%가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고 응답했다. 29.9%는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현진 기자